

# 신이주민의 제주: 비추어 만들어진 이미지, 살아가며 만드는 이미지

권 상 철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는 1970년대 관광지로 지정되며 외부와 연계된 변화를 시작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새로운 발전 목표 이래 다각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제주국제학교 개교, 중국인 관광과 투자 증가, 다음, 넥슨 등 기업체 이전, 서귀포 혁신도시 건설 등의 비교적 규모가 큰 변화가 최근의 제주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이전의 관광 개발, 즉 일시적 방문객의 증가와는 달리 이주자를 증가시키기에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유입자들은“신이주민”으로 특징지워지는데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제주를 거주지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독특한 자연과 문화적 특징을 가져 도시 지역과는 대비되는데, 이주의 배경이 유출적, 예를 들어 은퇴, 전원생활, 자유로움 등을 찾아 오는 경우가 많아 제주는 원래의 성격보다 ‘나은’ 모습으로 이주자들이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 누적되면 제주는 그렇게 새로운 성격으로 특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이주한 ‘신이주민’의 규모는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는 듯 하고, 주목을 받는 ‘신이주민적’도시권에서의 중상류층 유입자는 아직 생활을 위해 이주하는 보편적 이주자에 비해서는 수적으로 우세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 접촉한‘신이주민’은 제주도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의 분포와는 달리 전체 이주자들은 제주시 동 지역에 다수가 정착하고 있어 평균적 이주 특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하다.

제주의 이주자 중 소수이면서 제주의 성격을 또다르게 특징지우고 있는 이주자 집단은 대정지역 국제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종사자와 가족들일 것이다. 국제학교 관련 이주자들은 한정적 기간만 제주로 이주한 경우인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고 혁신도시의 경우 전국의 혁신도시 가족 단위 이주보다는 높은 정착율을 보이지만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아마 내릴 의지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이주자들이어서 이들이 생각하고 이 생각들이 만들어 가는 제주의 이미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이에 대한 탐구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주는 관광지로 개발되며 만들어져 왔던 이전‘파라다이스’, ‘신혼 여행지’이미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주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이미지였다면, 잠시 들르는 관광객이 아닌 거주를 위한 이주자들은 이런 이상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만들어야 할 것이지만, 이들도 자신들의 이전 생활 근거지에 ‘비추어’ 만들고,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을 그럴 가능성이 크

다. 그 모습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이주자는 체류자로 바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체류자, 이주자들이 만드는 제주는 ‘이상’적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오랜 거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변화 모습은 복잡하게 다가온다. 쾌적하고 좋은 ‘이상’적 제주를 그리는 것에 고마운 생각도 들지만, 웬지 섬 지역이 겪어야 만 했던 역사와 생존과 더불어 만들어진 삶의 전통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좋게 만 그려지는 것이 어색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신이주자’들이 ‘이주자’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이전에 살던 곳에 비추어 그려내는 그리고 싶은 제주의 이미지를 넘어 살아가며 제주의 모습을 알아가고 그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제주는 다른 섬 지역과 마찬가지로 독특함을 아름다움으로만 간주하기에는 작지만 농축된 삶의 모습이 있다. 섬 지역은 고립, 한정의 특징을 가지지만 모든 삶의 요소와 경험들이 작은 속에 압축되어 있다. 떠나온 곳에 비추어지는 제주보다, 떠나온 곳의 기준에 비추어 제주를 상상하기 보다, 이주민에서 제주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작은 섬에서 또 다른 섬들이 생겨가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섬의 전통이 더 좋을 것이다. 신이주민들의 제주를 포착한 외부자이면서 내부자인 이주민의 혼성적인 (hybrid) 정체성이 보다 깊이를 더하면 상상의 제주가 현실의 제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관광객, 체류자, 이주자 순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의 규모가 클 것이지만, 제주의 현실은 그 역순일 때 제 모습에 가까울 것이다. 신이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상상, 기대, 실천은 적은 수를 대상으로 했지만 제주의 변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제공해 준다.